

## 단기延支給 수입기간 단축 原油제외 120日서 90일로

정부는 국제수지개선과 단기의채 축소를 위해 지난 7월30일부터 D A, 유전스등 단기延支給 수입허용 기간을 종전의 1백20일에서 90일로 축소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申秉鉉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단기의채감축 및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단기무역 신용도입억제방안의 하나로 延支給수입기간을 종전의 1백20일에서 90일로 단축키로 결정했다.

연지급 수입기간이 단축되는 수입상품은 原油를 제외하고 수입원자재 등을 포함한 모든 수입상품이다. 석유제품의 연지급수입기간도 90일 이내로 단축됐다.

정부가 이같이 연지급 수입기간을 단축한 것은 지난 상반기중 수출은 26.1% 증가에 그친 반면, 수출용 원자재수입은 56.7%나 늘어나면서 수출용을 포함한 원자재 재고보충이 상반기중으로 거의 완료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北예멘油田 시추성공 매장량 2억배럴 규모

油公이 美国의 헌트社와 합작으로 개발하고 있는 北예멘의 마리브 유전에서 기름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다.

崔東奎동자부장관은 지난 7월 19일 경제인클럽에서 열린 全經聯주최간담회에서 北예멘 마리브油田에서 이미 유장이 발견되어 현재까지 시추한 1개공의 생산능력 실험결과 하루 4천5백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실험이 계속됨에 따라 생산능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崔 장관은 마리브유전에서는 최종 생산능력실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 지역의 추정매장량은 2억배럴이 넘는 양질의 대형유전이

될 것 같다고 밝히고 앞으로 시추를 확대하면 이 지역에서만도 하루 10~20만배럴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리브油田은 北예멘의 수도 사나에서 동북쪽으로 2백km 떨어진 사막지대로 美国의 석유시추 전문회사인 헌트社가 지난 82년부터 北예멘과 유전개발계획을 체결한 후 금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추작업에 착수, 1차로 1개공을 시추했었다.

한편 국내업체들은 油公, 三煥企業, 現代종합상사, 油開公등 4개社가 컨소시엄을 형성, 금년 3월부터 24.5%의 자본참여를 하고 있다.

## 石油 26日分 비축의무화 정부, 精油5社에 조정명령

동력자원부는 지난 8월 1일 민

## 對韓LPG供給價 인하 사우디 톤당 10달러

사우디 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페트로민)는 지난 8월 1일자로 LP G의 對韓공급가격을 톤당 FOB기준 2백25달러에서 2백15달러로 10달러 인하 공급키로 했다고 LP G수입업체인 正友에너지에 통보해 왔다.

이로써 LPG의 對韓 공급가격은 울들어 3차례나 인하조정됐다.

사우디아라비아產 LPG의 對韓 공급가격은 연초 톤당 프로판 2백25달러, 부탄 2백50달러로 차등화돼 있었으나, 지난 7월 1일자로 톤당 2백25달러로 프로판과 부탄 가격이 단일화됐는데 자동차연료인 부탄은 연초 2백50달러에서 현재 2백15달러까지 크게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이번 對韓공급가격인하로 8월 1일 이후 도입분 약 24만톤이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正友에너지는 올해 48만톤의 LPG 도입 계획 중 지난 7월말 현재 50%인 24만톤을 도입했다.

동력자원부는 울들어 산유국의 계속적인 對韓LPG공급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내가격은 조정치 않고 지난 6월 18일자로 기금을 톤당 1백80달러에서 2백60달러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간원유비축제고를 위한 조정 명령을

발동, 精油 5社의 비축물량을 26일분씩으로 의무화하고, 회사별 비축물량을 고시했다.

26일분의 원유비축물량은 정유회사 자체비축제고 20일분과 정부지원비축물량 6일분(3백만배럴)을 합한 것으로서 정부지원 비축물량에 대해서는 석유비축기금으로 전액(CIF가격 기준) 용자 지원해 주되, 용자조건은 무이자로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으로 민간비축을 지원키로 했다.

동자부가 할당한 정유사별 비축의 무량은 ▲油公 5백89만1천9백배럴, ▲湖南精油 4백65만5천배럴, ▲京仁에너지 1백22만3천6백배럴, ▲雙龍精油 1백21만3백배럴, ▲極東石油 31만9천2백배럴등 모두 1천3백30만배럴이다.

동자부가 할당한 정유사별 의무비축물량은 국내의 하루 평균소비 원유를 51만배럴로 보고 정유사별 하루 생산량에 따라 할당한 것인데 하루 생산량은 정유회사의 정제능력과 다소의 차이가 있다.

## 仁川LPG저장소 준공 油公, 68억5천만원 들여

油公은 지난 6월 21일 金之鉉 석유사업영업담당전무를 비롯한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仁川LPG저장소의 준공식을 가졌다.

仁川LPG저장소는 鮮京建設이 공사를 담당, 지난 82년 9월에 돌핀시설을 착공한 후, 83년 4월에 LPG저장시설에 착공, 총 68억5천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난 83년말에 완공, 84년 1월부터 제품을 취급해 왔다.

仁川LPG저장소는 2만톤급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돌핀시설과 프로판 및 부탄등 총7만5천 배럴의 LPG 저장능력을 갖춘 5기의 저장탱크시설로 京仁, 江原, 忠淸 지역 일원에 LPG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 2차6개월무사고기록 湖南精油 麗水공장

湖南精油 麗水공장은 지난 6월 27일 제2차 6개월의 무사고 안전기록을 달성했다.

이 기록은 지난 80년 6월 29일 6개월 단위로 무사고 안전기록을 계산하기 시작한 이후 지난 83년 9월 27일 제1차 6개월 무사고 기록달성에 이어 두번째의 기록이다.

## 釜山·仁川에 하계휴양소 湖南精油 피서철 맞아

湖南精油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釜山과 仁川지역에 하계 휴양소를 설치 운영했다.

지난 7월 21일부터 한달간 운영된 釜山지역의 경우 송정해수욕장에 탈의실, 샤워장 및 간이매점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주말과 공휴일에 旧조방알 관광버스 공동배차장에서 휴양소행 버스를 운행했다.

한편 仁川지역은 송도 청학물장을 임대하여 하계휴양소를 설치 운영했다.

## 무사고 백만시간 달성 雙龍, 溫山공장서 기념식

雙龍精油 溫山工場은 지난 7월 20일 대망의 제1차 무사고 100만시간 목표를 달성하고 8월 1일 기념식과 자축연을 가졌다.

李承源사장은 이날 溫山공장에서 가진 기념식 치사에서 『지난 80년 6월 11일 이래 「무사고 100만시간 운동」을 전개해 오면서 14차례나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등 안전기록 달성이 어려웠던 것은 우리 공장이 精油施設 외에도 국내에서 처음이며 공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高温, 高壓의 고급 潤滑基油 제조공정을 가지고 있는 때문』이라고



말하고 『지난 겨울 극심한 한파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공장운전을 수행했다』고 치하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李承源 사장은 李善鍾 공장장에게 「溫山공장 제1차 무사고 100만시간 기록달성」을 치하하는 기념패를 수여하고 온산공장 전직원에게는 고급선풍기 1대씩을 전달했다.

기념식을 마치고 곧이어 본관 앞 잔디밭에서 벌어진 「무사고 自祝」가든 파티에는 현장근무자를 제외한 300여명이 참석, 女職員會 合唱團의 「코러스」가 흥을 돋우는 가운데 무사고 100만시간 기록달성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 나누었다.

### 고온고압 정밀한 반응조건 등 공정상의 특수성 감안, 큰의의

雙龍精油는 시험가동중이던 지난 80년 6월 11일부터 무사고 100만시간 기록에 도전해온 이후 수차례나 80~90만시간을 넘어 100만시간 기록의 문턱까지 접근하는 아까운 경우도 있어 기록 산정기준이 일부 비판의 대상이 된 적도 있었으나 특유의 윤활기유 관련공정 및 탈황설비, 수소제조공정 등 첨단공정의 철

저한 안정조업을 위해서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雙龍精油의 윤활기유공정은 1cm<sup>3</sup> 당 210kg의 초고압력과 400℃의 고온에서 엄격하고도 정밀한 반응조건을 필요로 하는데다 특유의 탈황시설은 유화수소회수시 독가스가 다량 누출되는 위험이 따르므로 무사고 100만시간 기록을 달성하는 데는 그만큼 어려움을 안고 있다.

여기에 목표달성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또 한가지 요소는 기록산정이 종업원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의 雙龍이 목표를 달성하기 까지는 타사의 거의 배에 가까운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 雙龍精油가 무사고 100만시간의 기록을 달성한 것은 해외에서도 드문 예라고 전문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 모의石油비상훈련 승용차 운행제한 등 실시

정부는 석유위기 발생시 국민들의 대비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

8월 19일을 D데일로 하여 모의석유비상훈련을 실시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세계석유 위기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 이에 대비키 위해 국내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석유수요억제연습은 19일을 D데일로 하여 서울일원은 4일간, 水原, 全州, 馬山 등 3개 지방도시에서는 2일간 실제연습과 도상연습으로 구분하여 최종소비행위에 대한 통제·할당 및 배급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일원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모든 자가용 승용차는 차량번호의 끝자리를 짝·홀수로 구분, 격일제로 운행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용 승용차는 10% 감축 운행하였다.

또 水原, 全州, 馬山 등 3개 지방도시에서는 19, 20 양일간 한시택시, 회사택시 등 일반영업용 택시의 운행이 33% 축소되고, 개인택시는 2부제로, 콜택시는 격일제로 각각 운행되었다.

또 서울, 水原, 全州, 馬山 등 4개 지역의 주유소(자동차충전소 포함)는 19, 20 양일간 당일 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 5시까지 영업을 금지되었다.

